

# 汗症에 對한 東·西醫學的 比較

金 賢·吳泰煥·鄭昇杞·李珩九

## I. 緒 論

汗이란 살아있는 人間에게 있어서 매우 重要한 生理現象의 하나이다. 또한 病理 變化까지도 外部에서 쉽게 觀察할 수 있게끔 나타내 준다<sup>1)</sup>.

東洋醫學的인 汗의 生成은 飲食物이 胃, 小腸, 大腸, 膀胱을 통하여 三焦氣化로 清濁이 구별되고 清의 氣運이 衛氣를 따라 全身에 분포되니 이것이 곧 汗이며 時間別 구분으로는 自汗과 盜汗이 있고 部位別 구분으로는 頭汗, 心汗, 陰汗, 偏汗, 手足汗이 있고, 性狀別 구분으로는 黃汗, 血汗, 絕汗, 柔汗, 油汗, 粘汗이 있고 그 밖에 大汗, 多汗, 戰汗, 無汗 등이 있다<sup>3, 6, 7)</sup>.

西洋醫學的인 汗의 生成은 大腦에 대한 精神的 刺戟과 視床下部에 대한 溫度 刺戟으로서 콜린질후성 交感神經纖維에 의하여 神經支配되어 汗腺에 刺戟이 전달되어 분비되는 것이다.

그 病理的 구분은 全身性 多汗症, 無汗症, 局所性 多汗症, 無汗症이 있다.

이러한 汗의 東洋醫學的 文獻考察과 生理, 病理的 分類와 더불어 西洋醫學的인 神經支配體系 및 人體內 作用을 통하여 東, 西醫學的인 관찰을 相互 比較함으로써 各各의 特性 및 그 重要性을 살펴보고자한다.

## II. 本 論

※ 東洋醫學的 觀察

### 1) 黃帝內經素問<sup>2)</sup>

#### (1) 金匱真言論

夏暑汗不出者, 秋成風虐

#### (2) 陰陽應象大論

陽盛則 身熱 溼理閉 -- 陰性則 身寒汗出 身常清數慄而寒 寒則厥厥則腹滿死

#### (3) 陰陽別論

陽加於陰 爲之汗

#### (4) 經脈別論

飲食飽甚 汗出於胃 驚而脫精 汗出於心 持重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 搖體勞苦 汗出於脾

#### (5) 藏氣法時論

肺病者 喘咳逆氣 肩背痛 汗出 腎病者 腹大脛腫 咳喘身重 寢汗出 憎風

#### (6) 評熱病論

人所以汗出者 皆生於穀 穀生於精 今邪氣 交爭於骨肉而得汗者 是邪劫而精勝也 精勝則當能食而不得熱 得熱者邪氣也 汗者 精氣也 今汗出 軌復熱者 是邪勝也 陰虛者 陽必溲之 故少氣時熱而汗出也

#### (7) 骨空論

風從外人 令人振寒汗出

#### (8) 水熱穴論

至陰 勇而勞心 則腎汗出 腎汗出逢於風 內不得入於臟腑 外不得越於皮膚 客於玄腑 行於皮裏 傳爲腑腫 本之於腎 名曰風

水 所謂玄府者 汗空也

## 2) 黃帝內經靈樞<sup>3)</sup>

### (1) 營衛生會篇

黃帝曰 人有熱 飲食下胃 基氣未定 汗則出 或出於面 或出於背 或出於身半 基不循衛氣之道而出 何也 岐白曰 此外傷於風 內開溱理 衛氣走之 固不得徇其道 故命曰漏泄 營衛者 精氣也 血者 神氣也 故血之與氣 異名同類焉 故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

### (2) 決氣篇

溱理發泄 汗出溱溱是爲津 津脫者溱理開 汗大泄

### (3) 五隆津液別論

天暑衣厚則 溱理開 故汗出

### (4) 五變篇

黃帝曰 人之善病 風厥汗 汗者何而候之 少俞答曰 內不見 溱理疎則善風病

## 3) 諸病源候論<sup>7)</sup>

(1) 虛勞汗候：諸陽主表在於膚溱之間 若陽氣偏虛則津液發泄故爲汗 汗多則損心 心液爲汗苦也

(2) 虛勞盜汗候：盜汗者 因眠睡而身體流汗也 此由陽虛所致

(3) 大病後虛汗候：大病以後 復爲風邪所兼 則陽氣泄 故令虛汗

(4) 風虛汗出：夫人肌肉不牢而分理 理粗而皮不緻者 溱理疎也 此則易生於風 風入於陽 陽虛則汗出

## 4) 傷寒明理論<sup>6)</sup>

(1) 自汗：傷寒自汗何以明之 自汗者謂不因

發汗而自然汗出者是也 … 風寒濕地毒爲四時之氣中人則爲傷寒 風與暑濕爲邪皆令自汗 惟寒邪傷人獨不汗出 寒傷營而 不傷衛 衛無邪氣所干則皮奏得而密 津液得而固是以汗不出也 及其氣漸入而傳而爲熱則亦使自汗出也

(2) 盜汗：傷寒盜汗何以明之 盜汗者爲睡而汗出者也 自汗則或睡與不睡自然而出也 盜汗者不睡則不能汗出 … 雜病盜汗者 責其陽虛也 傷寒盜汗者 是由邪氣在半表半裏使然也

(3) 頭汗：頭汗向以明之 頭者 諸陽之會也 邪搏諸陽 津液傷奏則 汗見於頭也

(4) 手足汗：四肢者 諸陽之本爲胃主四肢 手足汗出也 陽明之證也 陽明邪熱 傳併陽 陽明則 手足爲之汗出

(5) 無汗：若寒邪直中經 溱理緻密 津液內滲則無汗 無汗之由 又由數種如傷寒在表 及邪行於裏或水飲內蓄與亡陽久虛 皆令無汗

## 5) 三因方<sup>15)</sup>

夫自汗 多因冒風傷暑 乃喜怒驚恐房室虛勞能致之 無問睡醒津津自出 名曰自汗 或醒着汗出名曰盜汗也 人之氣血 猶陰陽之水火平則寧 偏則過陰虛陽必溱 高發熱自汗 如水之熱而自湧 陽虛陰必勝 故發厥自汗 如水之盜而自流

## 6) 普濟方<sup>13)</sup>

夫汗者 血之異名 陽主氣 氣爲衛 陰主血 血爲榮 人之一身 負陰拋陽 平則寧 偏則病 陰虛陽必走 故發熱出如珠水 熱而湧 陽虛陰必乘 故發厥汗出 如水溢而 流汗者 表虛而津液爲之發泄也。

人以爲氣同其表 所以溫肌肉 充皮膚 肥溱理

### 7) 丹溪心法<sup>14)</sup>

- (1) 自汗：自汗屬氣虛 血虛 濕 陽虛痰
- (2) 盜汗：屬血虛 陰虛 盜汗者 謂睡汗出也 不睡則不能汗出方其睡熱也 ... 雜病盜汗 責其陽虛與傷寒盜汗非此之 亦是心虛所致 宜斂心氣益腎水 使陰陽調和 水能升降 其汗自之。

### 8) 東垣十種醫書<sup>8)</sup>

自汗論：或問濕之與汗為陰乎 為陽乎曰西南坤土也 在人則為脾胃也 人之汗 猶天地之雨也 陰滋其濕則為霧露為雨也 陰濕下行 地之氣也 汗多則亡陽 陽去則 陰勝也... 內經云 氣虛則外寒雖見熱中蒸蒸為汗

### 9) 萬病回春<sup>4)</sup>

- (1) 心汗者 心孔有汗 別處黑也 名曰心汗 因憂思悲恐驚勞傷鬱結而成 頭汗者 邪搏諸陽之首也 其症渴陰漿水 小便不利 此濕熱也 必發黃
- (2) 黃汗者 汗出染衣 黃如栢汁是也 問曰 黃汗之為病 身體腫發熱 汗出而渴

### 10) 景岳全書<sup>10)</sup>

汗出一證 有自汗者 有盜汗者 自汗者 微微然無時而動 作則益甚 盜汗者 寐中通身汗出覺來漸收諸古法云自汗者 屬陽虛 溼理不固 衛氣之所司也 人以衛氣固其表 衛氣不固則 表虛自汗而津液為之發泄也... 盜汗者 屬陰虛 陰虛者 陽必溼之 故陽蒸陰分則血熱 血熱則 液泄而為盜汗也... 然以餘觀之則 自汗有陰虛 盜汗亦多陽虛也如遇煩勞大熱之類最多自汗 故或以飲食之火起於胃 勞倦之火起於脾 酒色之火起於腎 皆令人 自汗 若此者為非陽盛陰衰者 而何又若人

之寤寐總由 衛氣之出入 衛氣者陽氣也 人於寐時則衛 氣入於陰分 此其時非陽處於表者 而何所以 自汗盜汗亦各有陰陽之證不得 謂自汗 必屬陽虛盜汗必屬陰虛也

### 11) 張氏醫通<sup>11)</sup>

- (1) 無汗：風暑濕三者于人皆衛氣受病 惟寒則營血受傷 溼理緻密 津液內滲 陽氣有餘 故身熱無汗而喘也
- (2) 自汗：太陽中風 不由發表而汗泄 謂之自汗 風傷衛則表虛不能自固而汗 ... 然濕氣傷於脾 暑氣傷於心 皆令自汗
- (3) 盜汗：蓋邪居於衛而慾入 睡則衛氣行於裏乘表中 陽氣不斂 津汗得泄 故但睡而汗出... 故雜病盜汗 責其陰虛血熱 傷寒盜汗 責在半表半裏為 膽熱也
- (4) 頭汗：三陰之症 皆至之頸胸中獨 三陽經三循於頭 故頭汗出 身無汗齊頸而 還乃陰不和 邪居表裏之間故有是證

### 12) 醫學心悟<sup>12)</sup>

自汗症有風傷衛 自汗出者有熱邪傳裏 自汗出者 有中暑 自汗出者有中寒冷汗自出者... 其盜汗症傷寒邪客 少陽有之 外此悉屬陰虛

### 13) 臨證之南醫案<sup>5)</sup>

- (1) 汗者 心之液 又云 腎主五液 故凡汗病未有不曲 心腎虛而得之者
- (2) 心之陽虛 不能衛外而固則 外傷而自汗
- (3) 身之陰虛 不能內榮而退藏則 內傷而盜汗

### 14) 類證治裁<sup>9)</sup>

汗為心液 腎主五液 故汗出皆有心腎虛致之有自汗 有盜汗 自汗屬陽虛 盜汗屬 陰虛 自汗者

不因勞動 不因發散 概然自出 由陽虛不能衛外 而固密也 盜汗者 寐中汗出 醒後條收由陰虛不能內營而斂藏也

### ※ 西洋醫學의 觀察

發汗은 사람의 가장 重要한 體溫 調節機轉이다. 氣溫의 適應이 잘되는 사람에서는 汗의 蒸發에 依한 體溫調整이 75-90 %를 차지한다<sup>1)</sup>. 發汗能力은 汗腺의 數 뿐 아니라 汗腺의 크기 分泌量과 反應性에 따라 다르다. 發汗의 主刺戟은 大腦에 대한 精神的 刺戟과 視床 下部에 대한 溫度 刺戟이다. 感情으로 即刻적이고 갑작스러운 發汗이 일어나며 始初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發汗이 있다가 結局은 全身的인 發汗이 생긴다. 視床下部의 體溫調節 中樞는 末梢血管에서 부터 腦로 運搬된 더운 血液에 依하여 刺戟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1)</sup>

體溫調節 發汗은 全身에서 發汗이 있으나 손바닥과 발바닥의 發汗은 終末에 나타난다. 겨드랑이의 汗腺은 精神的인 刺戟과 溫度刺戟에 같이 反應하여 發汗이 있다. 어떤사람에 있어서는 겨드랑이의 汗腺이 손바닥이나 발바닥과 같이 精神的刺戟에 反應한다<sup>1)</sup>.

#### 1) 多汗症

溫熱性發汗은 體溫調節의 基本的役割을 擔當한다. 感情發汗은 손과 발바닥에서 가장 두렵하며 下等 哺乳類에서는 摩擦面의 潤滑油로서 基本的役割을 擔當한다.

##### (1) 全身性 多汗證

甚한 運動과 높은 溫度의 環境에서 甚한 發汗은 蒸發으로써 冷却이 된다면 좋은 機能이 될 수 있다. 알코올,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 아스피린등은 發汗을 더욱 促進시킨다. 어떤 形

態의 疼痛이나 動搖病은 多汗證을 일으킨다.

##### (2) 局所性 多汗證

不安狀態에서 많은 사람들은 손과 발바닥, 또는 겨드랑이에서 甚한 發汗을 일으킨다. 손에서 보는 多汗證은 正常人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灼熱病, 神經損傷, 神經炎, 栓塞性, 靜脈炎 等の 炎蒸性 疾患에서 交感神經을 직접 刺戟하면 局所性 多汗證을 일으킨다.

#### 2) 無汗證

無汗證은 精神的 或은 溫熱的 刺戟으로 發汗 檢査를 함으로써 確認할 수 있다.

##### (1) 全身性 無汗證

視床下部의 決定的中樞가 腫瘍, 血管事故, 手術 및 外傷으로 破壞되었을 때 完全한 無汗證이 생긴다. 視床下部의 溫度調節中樞가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면 熱射病이 생긴다. 末梢神經系의 어떤疾患으로써 全身性 無汗證이 일어난다.

##### (2) 局所性 無汗證

交感神經系의 中樞 或은 末梢의 障礙로써 局所性無汗證이 일어난다. 癩病, 外傷 或은 다른 形態의 神經炎이나 通風으로써 局所性 無汗證이 일어난다.

### Ⅲ. 總括 및 考察

東洋醫學에서의 汗이란 津液의 一部로 보고 있다. 그 主要한 發生機轉은 飲食物이 胃, 小腸, 大腸, 膀胱을 통해 三焦氣化로 因하여 清濁이 區別되고 清은 五臟의 經脈을 통해 肺에

서 危機를 따라 全身에 分布되고 濁은 膀胱으로 排泄된다. 여기에서의 清은 津液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汗이 되는 것이다.

西洋醫學에서의 汗이란 99%의 물과 1%의 溶解物을 갖는 透明한 水溶液이다. 이것은 大腦에 對한 精神的 刺戟과 視床下部에 對한 溫度刺戟으로써 콜린절후성 交感神經 纖維에 의하여 神經支配되어 汗腺에 刺戟이 傳達되어 分泌되는 分泌物이다<sup>1)</sup>.

東洋醫學에서의 汗의 種類는 크게 自汗과 盜汗으로 區別된다. 自汗이란 水面과 關係 없이 自然히 排出되는 것을 말하며 그 原因으로 氣虛, 血虛, 濕, 陽虛, 痰 등이 提示되었고 盜汗이란 睡眠中 排出되며 覺醒時 즉시 그치는 것을 말하며 그 原因으로 血虛, 陰虛 등이 提示되었다<sup>4, 5, 7, 10)</sup>. 이외에도 死의 直前에 흘리는 絶汗, 汗出染衣色黃栢汁과 같은 黃汗, 肝火에 依하여 血이 亡行하여 일어나는 血汗 등을 살펴볼 수 있다.

部位別로 나누어 본다면 熱入血室하여 胃熱上薰하여 일어나는 頭汗, 陽經邪熱하여 傳病陽明하여 일어나는 手足汗, 心汗, 陰汗, 偏汗<sup>3, 6, 7)</sup>이 있다. 이밖에 大汗, 多汗, 戰汗, 無汗, 絶汗, 柔汗, 油汗, 粘汗 등이 文獻적으로 登場한다.

自汗과 盜汗은 交感神經과 副交感神經의 均衡喪失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交感神經과 副交感神經은 睡眠과 매우 密接한 關係를 가지며, 自汗, 盜汗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絶汗, 黃汗, 血汗등은 體液中의 電解質濃도와 매우 密接한 關係를 推測할 수 있다. 正常人에서 만약 鹽分의 攝取가 많다면 汗中の 鹽分量이 많아지며 물이나 포타시움의 攝取가 많든지 或은 鹽分의 攝取가 적다면 汗中の 鹽分量이 減少하는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部位別로 區分한 頭汗, 手足汗 등은 東洋醫學에서는 그 部位에 큰 意味를 賦與하는 것이

아니라 몸 全體의 均衡에 따라 分類한 것이며 西洋醫學에서 처럼 局所的인 汗腺의 閉鎖나 末梢 交感神經의 損傷에 그 主眼點을 두고 있지 않다.

#### IV. 結 論

東洋醫學에서의 汗이란 하나의 나타나는 現象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타나는 現象과 人體의 生理, 病理變化에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觀察할 수 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東洋醫學에서는 汗이란 하나의 現象을 時間別로는 自汗과 盜汗, 部位別로는 頭汗, 手足汗, 心汗, 陰汗, 偏汗, 性狀別로는 血汗, 黃汗, 絶汗, 柔汗, 油汗, 粘汗 등으로 자세히 分類될 수 있었으며 그것의 生成過程 및 生理, 病理에 關聯된 變化를 說明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因하여 人體疾病의 治療까지도 産出할 수 가 있었다.

1. 汗의 生成過程은 飲食物이 胃, 小腸, 大腸, 膀胱을 통하여 三焦氣化로 清濁이 區別되어 清의 氣運이 衛氣를 따라 全身에 分布되어 이루어진다.
2. 汗의 生理的, 病理的 觀察은 다음과 같다. 自汗이란 睡眠과 關係 없이 自然히 排出되는 것을 말하며 그 原因으로 氣虛, 血虛, 濕, 陽虛, 痰이 있다. 盜汗이란 睡眠中 排出되며 覺醒時 即時 그치는 것을 말하며, 그 原因으로 血虛, 陰虛가 있다.
3. 以外에도 死의 直前에 흘리는 絶汗, 汗出染衣色黃栢汁과 같은 黃汗, 肝火에 依하여 血이 亡行하여 일어나는 血汗, 熱入血室하여 胃熱上薰하여 일어나는 頭汗, 陽經邪熱하여 傳病陽明하여 일어나는 手足汗, 心汗, 陰汗, 偏汗이 있다. 또한 大汗, 多汗, 戰汗, 無汗, 絶汗, 柔汗, 油汗, 粘汗이 있다.
4. 또한 汗의 種類를 五臟에 配屬시켜 肝에

는 黃汗, 心에는 心汗, 血汗, 脾에는 食後汗, 腎에는 陰汗으로 나눌수 있다.

西洋醫學에서의 汗이란 大腦에 대한 精神的刺戟이나 視床下部에 對한 溫度刺戟을 反映하는 것이며, 自律神經系の 支配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此러므로 그 病理的인 面에서 볼 때 全身性 無汗, 局所性 無汗과 全身性 多汗, 局所性 多汗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西洋醫學에서의 汗은 臟腑에 따른 病位의 病變으로서 보다는 縮小的인 神經反應 및 精神的反應이다.

### 參 考 文 獻

1. 李文鎬 : 內科學(上), 서울, 學林社, 1986 PP. 307 - 310
2. 洪元植 : 精校皇帝內徑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 1985, P 20, 24, 32, 59, 86, 89, 92, 117, 123 - 124, 209, 213
3. 洪元植 : 精校皇帝內徑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 1985, PP. 119 - 120, P. 131, 168, 183.
4. 冀延賢 : 增補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2, P. 650, 652
5. 葉天士 : 臨證指南醫案, 台北, 施風出版社, 1978, 卷2, P26
6. 成無己 : 傷寒明理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P. 568 - 573
7. 素元方 : 諸病源後論, 台北, 集文書局, 1976, P. 37, 474.
8. 李東垣 :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235
9. 林珮琴 : 類證治裁, 台北, 施風出版社, 1978, PP. 148 - 155
10. 張介賓 : 景岳全書, 台北, 國風出版社, 1980, PP. 214 - 215
11. 張璐玉 : 張氏宜通, 台北, 國風出版社, 1980, PP. 939 - 941.
12. 程國彭 : 醫學心悟, 台北, 施風出版社, 1979, PP. 205 - 206
13. 朱 肱 : 普濟方, 서울, 翰成社, P. 896.
14. 朱震亨 :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650, 652
15. 陳無擇 : 三因方, 台北, 臺兩國風出版社, 1978, 卷10, P. 10.

## A B S T R A C T

A comparative study of the oriental and the Occidental  
medical literature on the symptoms of sweat.

Kim, hyun            OH, tae hwan  
Jung, sung gl,    Rhee, hyung koo  
dep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Review of literature on the symptoms of sweat. According to comparative studies of oriental and occidental medical literature on the symptoms of sweat,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1. oriental medicine

- 1) time : ja han (自汗), do han (盜汗)
- 2) body : du han (頭汗), su jog han (手足汗), sim han (心汗), eum han (陰汗)  
pyun han (偏汗)
- 3) kan(肝) : hwang han (黃汗),  
sim(心) : sin han (心汗), hyul han(血汗),  
bee(脾) : sig hu han (腎虛汗)  
sin(腎) : eum han (陰汗)

By the study of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sweat were concerned with physiological function and path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 body.

### 2. occidental medicine

- 1) NO sweat of the whole body
- 2) NO sweat of the part
- 3) much sweat of the whole body.
- 4) much sweat of the part.

By the study of the western medical literature, sweats were tiny reaction of the nerve and the mind.